

코스피	2534.34 (+33.10)	코스닥	696.83 (+19.82)
금리 (미국 9년)	2.773 (-0.043)	환율 (원-달러)	1402.40 (+0.60)

정의선, 글로벌 수소 리더십 강화 日 도요타·中 광저우와 협력 속도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11조 투자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협력 언급
울산시-광저우와 유기적 협력도
수소산업협의체 만들고 공동연구



소를 이야기해서 같이 좀 잘 협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키오 회장도 "수소 인프라 등 관련 분야에서 현대차와 협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수소엔진 레이싱카를 내구 레이스에서 운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 1, 2위 기업인 현대차와 도요타 두 총수의 만남은 올해 초부터 벌써 세 번째다. 두 총수의 연이은 만남은 두 그룹간 수소 모빌리티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올해 초 정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도요타 회장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국 용인에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됐다. 세 번째 만남은 또다시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밸리챔피언십(WRC)'에서다.

지난 1998년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도로 수소사업에 첫발을 댄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1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도요타도 하이브리드카에 이어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중국과도 수소 생태

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2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쑨즈양 광저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울산시-광저우시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 울산시, 광저우시가 수소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울산시, 광저우시와 함께 '수소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소포럼 개최, 수소산업 실증사업 발굴,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수행 등을 추진한다.

또 울산시가 계획하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도입을 광저우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현대차는 울산시와 협약을 맺고 2025년 수소트랙터를 비롯해 선박, 트램, 발전, 지게차 등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중국 광저우시에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HTWO 광저우'를 운영하고 있다. HTWO 광저우는 지난해 광저우시에 총 500대분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했으며, 2025년까지 1000대 이상의 시스템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김진성씨 벌금 500만원 선고
추 "진실과 정의 되찾아 감사"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

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금리 인하나, 동결이나... 한은, 선택 복잡

소매판매 하락세... 경기부양 시급
원·달러 급등에 금융안정도 필요

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동결 요인도 많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는 3.25%다.

◆ "금리 안 내리면 내수 회복 더디"
현재 우리나라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가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 마트 등 소매점의 판매액을 기준(100)으로 두고 판매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내수 지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1월 자영업자는 552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5% 증가했지만 3월 -0.6%, 6월 -1.7%, 9월 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조차 없던 지난 2023년 1월 0.5%, 3월 1.7%, 지난 6월 1.7%, 9월 0.3%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9월 기준 145건으로 올해 1~9월 총 1444건이 신청됐다. 지난해 1~9월 1213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낮춰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주 KDI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거시정책 기조도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진석 비서실장, 여당 의원 40여명과 오찬... "분열되면 안 돼" /사진 뉴스1
▲ 한동훈, 당원계시판 논란에 "당 대표 공격하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 여, '당원계시판 논란' 확산... 비공개 회의서도 고성 총출
▲ 민주당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정치적 금법 위반 등 고발"



▲ 민주당, 윤 부부 휴대전화 교체에 "공수처 증거보존 신청해야"
▲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최악의 사태와도 당 활동 변함 없을 것" /사진 뉴스1

내년 성장률 전망 2.1%... 트럼프 2기 출범 등 리스크 변수

산업연, 2025 경제·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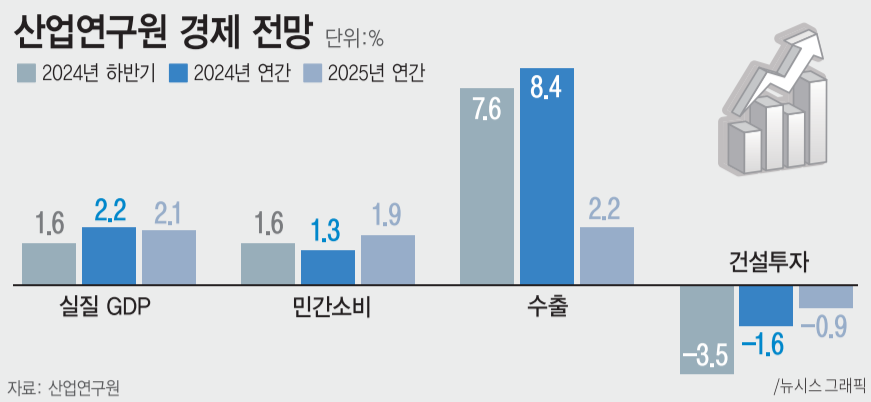
수출 성장세·설비투자 개선에도 소비·건설투자 부진에 회복 악화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예상 원/달러 환율 연간 1345원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내린 2.1%로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해 성장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이 발목을 잡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국내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는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수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여력 등 공급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배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해 연간 1345원대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

대, 물가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영향으로 올해(-1.8%)에 이어 0.9%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IT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확대된 48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최소 8.4%~ 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기간 약 2.2~2.6%포인트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부침이 많은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맨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맨앞줄 왼쪽 여섯번째) 참석자들이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한일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한 뜻'

日 오사카서 회장단 회의 개최 최태원·양재생 등 韓측 14명 참석 "미래 100년 비전제시 프로그램 제안"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한일 양국 간 지난 60년 동안 성과와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한국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해 9개 지역상의 회장을 포함한 13명의 일본 기

업인이 참가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내년 한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과거 60년간의 양국 경제협력에 되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함께 해서 양국의 경제계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 개최와 더불어서 그간의 경제협력 역사와 성공사례를 담은 전시회를 통해서 6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협력은 곧 경쟁력의 원천이니 한일 상의가 폭넓은 기반으로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공급망 강화와 같은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지역상의 간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외의 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일 경제협력 유망분야로 수소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 등이 긍정적인 분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도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SOC,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유망 분야 발굴 ▲관광, 문화교류 등 국민교류 확대 ▲2025 APEC CEO Summit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시, '한강버스' 2척 실물 첫 공개

경남 사천시 진수식 진행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의 실물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 부근 행사장에서 한강버스 2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 등이 참석해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기원했다.

한강버스는 항주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쌍동선 형태로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일출, 낙조 등 다양한 아름다운 강의 색과 빛을 투영할 수 있도록 흰색 기본 바탕을 적용했다"며 "여기에 청량감 있는 파란색을 그래픽과 함께 표현해 반짝이는 운슬과 시원한 물살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된 한강버스의 추진체가 배터리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배터리 시스템 내부에 가스 센서를 설치해 화재 징후를 미



서울시가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한강버스 안전 기원 진수식'에서 한강버스의 실물을 공개했다. /서울시

리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셀 연쇄 폭발 방지 ▲열 폭주시 가스 분사 소화 ▲유사시 배터리 합체 침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하이브리드 추진체 시스템의 95% 이상을 국산화해 부품 수급 지연 및 과도한 A/S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이 매일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울산-中 광저우, 수소 대표도시 성장 목표"

>> 1면 '정의선, 글로벌 수소...서 계속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수소전기차를 울산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광저우는 해외에서 현대차 최초이자 유일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라며 "두 도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두 도시 모두 글로벌 수소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경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리어리커

미티드 : 올곧은 신념' 행사를 열고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이니시움은 수소탱크 저장용량을 늘리고 공기역학적 바퀴를 적용해 650km 이상의 주행 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연료전지시스템과 배터리 성능을 높여 최대 150kW의 모터 출력을 구현하는 등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보험·금융·무역 등 '새 지평'

디지털화폐 CBDC 온다

(中) 산업혁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 가능
위조나 해킹 없이 안전하게 처리
서류미비 근절 등 혁신 가능성 높아

#. 2035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김미란(가명·60세)씨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돌려받았다. 6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아 부담으로 잡혀 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약정이 5년간 추가 치료 사실이 없어 해제된 것이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약정도 많고 복잡한 데다, 눈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스마트계약이 부담보 기간을 체크해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 여부를 확인, 모바일 지갑으로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해 보험료를 낼 때마다 들었던 '돈 낭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좋아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되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프로그래밍해 전자계약서 안에 넣고, 이 계약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무역 프로세스별 스마트계약 효과〉

무역프로세스	당사자	블록체인·스마트계약 효과
거래계약	수출업자-수입업자	신용장자동개설 통지은행 불필요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수입업자 개설은행 수입업자 개설은행→수출업자 통지은행	
신용장 개설 통지	통지은행→수출업자	보험가입 자동화
보험가입	수출업자→보험회사	
수출통관	수출업자→세관	통관서류

다. 블록체인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발생 시 디지털화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앱(app)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납부영수증,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이다. 이를 받은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사고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내, 지급한다.

보험금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서류미비나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계약은 서류미비의 가능성은

줄이고,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 시간을 단축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병원, 공공기관, 사법기관이 상호 합의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시, 계약서와 진료 내용을 비교, 일치할 경우 사고접수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과정의 위조나 해킹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스마트계약시 사법기관이 체크한 조건을 통해 보험금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줄어들 수 있다.

◆GPS로 상품 위치 확인...대금지급 무역금융에서도 스마트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수출자)와 구입자(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방식은 신용장 거래다.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 상품은 관찰을 못 모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상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이때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과 수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이들기업의 신용을 보증한 은행도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수수료다. 신용

장 거래 수수료는 평균 수출금액의 0.11%로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0.01%)보다 비싸다. 예컨대 수출대금이 5억원일 경우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5만원이지만, 신용장 거래시 5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수입자와 수출자가 스마트계약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위조가 불가해 은행의 수수료 없이 자금송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반영하면, 수출선박이 안전한 지점까지 운행했는지 확인한 뒤 일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역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미리 규제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규제를 확인 스마트계약으로 미리 관세를 지급할 수 있다. 각 국가는 통관서류를 미리 스마트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통관 기관이 쫓아진다.

조현숙 원광대 무역학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의 도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하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규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거나 분쟁 해결방법을 미리 합의해 스마트계약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CJ그룹, K트렌드 주목...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

CEO 경영회의

이재현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경영환경 변화 전망, 성장동력 점검

CJ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CJ인재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계열사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8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김흥기 CJ주식회사 경영대표, 허민희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윤상현 CJ ENM 대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CJ그룹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망 및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과 '2025년 국내 경제전망 및 주요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현 회장은 '경쟁력 성장'을 화두로 던졌으며, "글로벌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단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신제품 개발 등 국내 사업의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초고령화, 양극화 등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글로벌로 확산한 K트렌드의 기회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K푸드·K콘텐츠·K팝 등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CJ그룹은 올해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세 자릿수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서는 80년대생 임원 12명을 선임하고 그룹 최초로 90년대생 CEO를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를 이어갔다.

CJ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그룹의 사업 역량과 성장동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그룹이 쌓아온 문화사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K트렌드를 선도하며 글로벌 리더 컴퍼니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면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서 계속

가계대출·환율 요동 "내리기 어려운 상황"

◆ 환율 1400원대는 동결 요인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흐름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기준 1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5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9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7000억원, 9월 6000억원, 10월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를 못한 이들이 전세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오후 3시30분기준)보다 4.3원 오른 1401.8원을 기록했다. 환율 증가는 지난 15일(1398.8원)부터 21일(1397.5원)까지 5거래일 연속 1400원을 밑돌다가 1400원으로 올라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은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으로 보인다. 환율을 감안해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1~2인 가구 1609만개... 전체 67% 차지

혼인 미루거나 아이 없이 생활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

(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

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대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 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인 가구 공략 통했다... SSM, 퀵커머스·소용량으로 성장세

〈기업형슈퍼마켓〉

소비 트렌드 변화가 만든 기회
대형마트 감소 속 SSM 점포 3.9% ↑
SSM 매출 증가율 시장 규모비 높아
애플리케이션 통해 장보기·쇼핑 증가

대형마트가 줄줄이 폐점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과거와 달리 성장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퀵 배송 서비스, 소용량 제품 공급 등이 주 성장 요인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속속들이 폐점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슈퍼마켓의 중간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주로 대형 유통 기업이 운영하며, 중소규모 매장에서 다양한 생필품과 신



롯데슈퍼 그랑그로서리 도곡점 매장 전경.

/롯데슈퍼

선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SSM은 대형마트에 밀려 위기를 맞았다. 대형마트와 전통적인 동네슈퍼마켓 사이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갖지 못한 점, 대형마트에 비해 약한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편의점이 근거리 쇼핑 채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SSM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랬던 SSM이 다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전년 동

기 대비 매출 증감률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9.1% ▲2.5%로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7% 증가로 반등했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매출 증감률이 8%에 달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마트와 비교했을 때도 SSM의 성장은 유의미하다. SSM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6%,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0.7% 증가했다. 마트 전체 오프라인 시장 매출 비중이 53.3%인데 반해, SSM 비중은 2.6%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SSM의 매출 증가율은 시장 규모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점포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기준, SSM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확대된 반면, 대형마트는 1.1% 감소했다.

실제 대형마트는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 폐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부산 서면점을 영업 종료했다. 이어 5월에 서울 목동점, 7월에 대전 서대전점과 경기도 안양점을 폐점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 4월 천안 펜타포트점, 지난 5월 상봉점을 닫았다.

업계에 따르면, SSM의 성장 배경으로 퀵커머스 서비스가 지목된다. GS리

테일은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이마트 역시 지난해 8월, 지난 6월 각각 배달민족 내 '장보기·쇼핑'에 입점하면서 퀵커머스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SSM의 소용량 제품 판매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홀로 자취를 하고 있다는 이 모 씨는 "혼자 사는 만큼 대량으로 사면 음식을 둘 곳도 없고, 다음식물 쓰레기가 돼 부담스럽다"며 "간단하게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마트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업계도 SSM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슈퍼는 최근 롯데슈퍼 도곡점을 SSM 최초 식료품 전문 매장인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이 매장은 5,000개 이상의 식료품 상품을 구비해 일반 롯데슈퍼 점포보다 약 30% 더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매장 전환에 대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근거리 위치한 식료품점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소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는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R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2024년 소비자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3년 연속 1위

N2,

NH투자증권

“집행 불가능 법안에 유감 농업·재정 악화우려 확대”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비판
농산물 수급 불안·가격 폭등 경고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 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국회 상임위 통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 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대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낱을 정부가 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아래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낱을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 생산 율입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

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요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향후 4개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할지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의 퇴직연금을 옮겼다 노후에 확신이 생겼다

퇴직연금을 바꾸면
노후생활이 바뀌니까

그래서 당신의 퇴직연금은
KB국민은행이어야 합니다.

더 든든한 노후생활
KB국민은행과 함께 준비하세요.

KB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KB스타연금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제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센터 (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773호(2024-11-20 ~ 2025-10-31)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024-5481호(2024.11.20), 광고물 유효기간 2024.11.20.~2025.10.31까지

 KB 국민은행

與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 野, 對與 공세 드라이브 가속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범죄사실 증명, 위증교사 고의 없어
김진성 씨 대해선 벌금 500만원 선고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국방부 장관 탄핵 등 속도
국민의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 계사판 논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

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양국 간 협력, 국방·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 확대 기대”

韓-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회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4대 분야 협력방안 공동성명 채택
北-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부·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

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부·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리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 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 의료산업 협력 확대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 기자

尹 지지율 25.7% 기록… 6주 만에 20% 중반대 회복

전주비 2.0%p ↑… 부정평가 70.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p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p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회복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p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p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p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p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p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한동훈 “성장·복지 아우르는 정책 개발할 것”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바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채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서예진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수익률 지키며 보유 상품 옮겨주고
IRP 수수료는 0원이니까



우리 연금프렌즈
상품 안내 영상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 연금프렌즈

비대면 IRP 수수료 0원

비대면 신규 가입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운용시 보수 별도 부과)

수많은 연금 전문가

168명 연금 전문가
전국 지점 상주 중
(*24년 8월 말 기준)

다양한 투자상품

ETF부터 TDF까지
457개 이상 엄선한 투자상품
(*24년 8월 말 기준)

꼼꼼한 사후관리

연중 수시
수익률 피드백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보호상품합산)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대면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펀드운용 시 운용 금액에 대한 펀드 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약관을 필독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전용고객센터(1599-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0094(2024.10.10~2025.12.31)

핀테크 협력·비대면 확대... 지방은행, '디지털 강화' 올인

5대 지방은행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적자점포 줄이고 비대면영업 강화 피움랩 등 핀테크 플랫폼과 손잡고 신규고객 유치·브랜딩 강화 집중

주요 지방은행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로 수익성이 악화한 점포 영업 대신 온라인 영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 외부 채널과의 연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을 지원해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 확보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디지털 채널 확보와 핀테크 플랫폼과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영업 대신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고 영업 구역의 한계가 없는 비대면 금융의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지방은행 점포 수는 총 911개로, 이 가운데 적자 점포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자 점



황병우 DGB금융 회장(첫번째줄 왼쪽 네번째)과 '피움랩' 6기에 선정된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피움랩'은 지방금융 최초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이다. /DGB금융

포 비중이 6.2%에 불과했던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과 크게 비교된다.

올해 7월에는 지방은행의 적자 점포 비중이 17.6%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점포 수도 111개 줄었다.

점포 수가 감소했음에도 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5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 총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약 155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94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금융 보급에 따라 비대면 대출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아직까지 자체적인 디지털 역량이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열세인 만큼, 디지털 영업 확대를 위해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과 더불어 자체 채널 육성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iM뱅크는 지난 10월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디지털 채널 확대 및 브랜딩,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토스는 국내 간편송금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 디지털 금융 이용률이 높은 2030 세대의 토스 앱 사용률은 85%에 육박한다.

아울러 iM뱅크는 지주사인 DGB금융의 자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을 통해 육성된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숨은 보험금 찾기', '비대면 금 거래' 등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9월 토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은행권 최초의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력 및 신용평가 모델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부터 대출 비교 플

랫폼 '핀다'와의 협력을 통해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 취급에 힘쓰고 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광주은행에 이은 '금융권 2호' 공동 대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같은 BNK금융그룹 소속으로 전략적 일치도가 높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핀다, 네이버페이, 더핀 등 다양한 외부 플랫폼에서 주담대·신용대출·소액대출 상품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지주사인 BNK금융 차원에서도 지난해 핀테크 육성 플랫폼 '스토리지B'를 출범했다. '스토리지B'의 회차별 모집 규모는 지방금융이 운영하는 핀테크 랩 중 최대 규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자금 및 인력 투자가 많고 계열사와의 협력도 용이한 시중은행, 디지털 전문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해 디지털 역량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외부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6주 연속 기름값 상승... 주유 할인카드 '필수템' 부상

신한 '딥오일', 주유비 10% 할인 현대 '에너지+카드', M포인트 적립 하나 '원더리빙카드', 10% 할인

이달 정부가 유류세 감면 폭을 낮추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기름값이 6주 연속 오른 만큼 카드업계는 유류비 할인 카드 이용을 권장한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만큼 주유 카드가 필수란 조언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1)당 1703.21원이다. 전국 평균(1637.18원) 대비 4% 비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에 1당 1653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

세 인하 조치를 완화하면서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유 가격은 1당 1506원에서 1555원으로 49원 올랐다.

한동안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이슈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 추이는 2~3주 후 국내 시장에 적용된다. 다음해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 유가 상승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는 주유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주유뿐 아니라 생활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다. 주유카드는 전월 실적

일반 신용카드 대비 낮고 폭넓은 혜택을 적용하는 만큼 알뜰한 소비를 꾀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베스트셀러 주유 카드는 '딥오일(Deep Oil)'이다. 주유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한다. 사전에 정유사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1회 변경할 수 있다. 스피드메이트와 주차장 이용금액도 10% 절감할 수 있다.

이어 신한카드의 '하이 포인트(Hi-Point)' 또한 소비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연회비가 1만5000원이며 주유 영역에서 1당 60원을 할인한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화물복지카드를 제외한 단일상품만 놓고 보면 이달 주유 승인금액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1위와 2위는 신한카드 상품이다"라

고 귀띔했다.

주거지 인근 GS칼텍스가 있다면 있다면 현대카드의 '에너지플러스카드'에 디전3'를 눈여겨볼 만 하다. 결제금액을 M포인트로 적립한다. 바로주유 서비스 결제 시 1당 150M포인트, 실물 카드로 결제 시 1당 80M포인트를 제공한다. M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달 가계 부담을 낮출 '마카오카드'를 공개했다. 7만원 이상 주유하면 10%를 할인한다. 이 밖에도 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최대 10% 청구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월 최대 2만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

하나카드의 흥행상품은 '원더 리빙

카드'다. 주유 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적용한다. 알뜰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관리비와 택시업종도 10% 할인한다. 월 최대 7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에너지카드'는 주유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을 월 3회, 총 3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대중교통, 주차장과 대리운전도 10% 할인한다. 이어 거주지 인근 에스오일이 있다면 '마이 에스오일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주유 금액을 전월 실적에 포함하고 10% 할인을 누릴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비는 사실상 고정비로 분류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분야"라며 "고유가 시대 주유 카드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고분양가에도 입지만 좋으면 완판행렬

분양가상한제 해제·공사비 급등 전국 아파트 분양가 신기록 경신 수도권도 국평 분양가 10억 넘어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대폭 해제된 것과 공사비 급등이 맞물린 결과다.

수도권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0억원 이하로는 찾아볼 수 없게됐고, 알짜 입지들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곳도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웃돌며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안양 호계운천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66

대 10이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17가구에 총 1299명이 접수했다. 최고 경쟁률은 59㎡B 타입으로 19.29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며,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평균 한자릿수 경쟁률은 미계약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주 전까지 완판(완전 판매)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천은 물론 경기도 전체로도 분양가가 사상 최고였던 '프레스티어자



안양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 투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웃돌았다. /DL이앤씨

이' 역시 전 가구가 완판됐다.

과천주공 4단지를 재건축해서 들어선 프레스티어자이는 최상층 복층을 제외하면 전용 84㎡의 분양가가 22억원 안팎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지난달 정당계약에서 대부분 계약을 완료했고, 일부 부적격자 등의 물량 역시 이달 예비당첨

자 대상으로 진행된 계약에서 모두 팔렸다. 계약자의 90%는 이상은 과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원아 이파크' 역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지만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입지나 호재를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분위기다. 노원구 월계동에 들어서는 서울원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전

용 84㎡가 최고가 기준 14억원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분양가는 매달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지난 2021년 736만원이나 올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 상승폭이 3년 만에 약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당 2657만원이 올라 전용 84㎡ 한 채에 9억원 이상 뛰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022년 부동산 불황과 함께 분양가까지 치솟으면서 청약 수요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분양 받은 사람들이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가는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케미칼, 3분기 EBITDA 배율 0.9배... EOD 불가피 전망

〈상각 전 영업이익〉

〈기한이익상실〉

EOD 사유 공고... 시장 불안감 고조
3개년 이자보상배율 추정치 4.3배
“직원 감원 관련 내용은 사실 아냐”

롯데케미칼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고해 롯데그룹의 유동성과 관련해 시장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21일 발행시기가 미도래한 회사채에 대한 EOD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14개 회사채 규모는 2조 3000억원이다.

EOD란 채무자가 사채관리 계약 등의 약정 조건을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기 이전에 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사채관리계약에서 규정된 특정 조건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다. 이번 문제는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개년 평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EBITDA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의미한다.

롯데케미칼은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재무비율을 준수한 상태였다. 사채관리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공시를 완료했다. 그러나 3분기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3개년 이자보상

배율 평균 추정치가 4.3배로 예상돼 EOD 트리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특히 3분기 EBITDA는 2977억원, 이자비용은 3197억원으로 이 배율이 0.9배에 불과해 과거 대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약화된 실정이다. 실제로 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지난 2021년 27.8배에서 2022년 1.2배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1.8배, 3분기에는 0.9배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롯데

케미칼은 EOD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설과 실적 부진이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석화 업황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업계는 롯데케미칼이 단기간 내 유의미한 영업현금 창출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6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7055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시장 우려를 달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지라시(정보지) 생성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직원 감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달 기준 4조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지속 검토를 통해 실

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급한 불은 끄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의 해명은 일반 가계에 비유하면 ‘이미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지만, 아직 3금융권 대출이나 개인과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모습과 비슷하다”며 “문제는 집값 하락과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금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 설명회에는 유동성 위기의 발원지인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처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양그룹 정기 임원인사·조직개편

김건호 사장, 스페셜티 등 화학사업 진두지휘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김 사장, 화학2그룹장 겸임
오너 4세 경영 본격화 전망

삼양그룹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을 화학사업 그룹장으로 선임했다. 김건호 사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스페셜티’(고기능성) 사업의 지휘봉을 잡는다. 오너 4세에 신성장동력을 맡겨 승계 구도의 밑바탕을 그렸다는 분석이다.

삼양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화학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글로벌(1그룹)과 스페셜티(2그룹)로 재편하고, 관련 임원을 선임하는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화학2그룹’으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도모한다. 화학1그룹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삼양이노캡 ▲삼양화성 ▲삼양화인



테크놀로지 ▲삼삼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화학소재사업군이 속한다.

화학2그룹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켄과 퍼스널케어 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아이(KCI), 지난해 인수합병한 글로벌 케미컬 기업 버든트(Verdant) 등 스페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로 구성된다.

화학1그룹은 기존의 화학그룹장인 강호성 대표가 맡으며, 화학2그룹은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이 그룹장을 겸직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계획이다.

바이오팜그룹은 전(前)에스티팜 대표였던 김경진 사장을 영입해 그룹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김경진 그룹장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에스티팜에서 합성1연구부장·연구소장·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연구개발자로서는 물론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그룹장은 이번에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장으로 선임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성 강화와 mRNA 전달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삼양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외부 영입을 제외한 신규 임원 6명 중 3명을 40대로 구성하고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했다.

삼양그룹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이 차별화된 인력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호주 가스처리시설 시운전

1호기 완공... 천연가스 사업 확장 결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세넥스 에너지를 통한 증산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며, 호주 천연가스 사업 확장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있는 세넥스에너지 아틀라스 가스전에서 가스처리시설 1호기의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 한곡과 함께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호주 에너지수요가 밀집된 동부에 위치하여 지역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을 기존 20페타줄(PJ·국제에너지 열량측정 단위)에서 60페타줄로 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0페타줄의 천연가스는 LNG 약 1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세넥스에너지의 아틀라스 가스전 가스처리시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2분기까지 가스처리시설 1호기와 연계 가스수송관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차레대로 증산가스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가스처리시설 2호기, 3호기를 가동해 증산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증산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동호주 지역 내수가스 수요의 10%를 초과하는 규모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전자칠판에 EBS 콘텐츠 담는다

EBS-UBION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공략 박차

LG전자가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한 ‘LG 전자칠판’으로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비온(UBION)과 ‘글로벌 교육 콘텐츠 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교육용 스

마트 디스플레이 LG 전자칠판에 EBS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제품에 콘텐츠를 더해 교육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전문기업 유비온은 LG 전자칠판에 내장하는 EBS 플랫폼 앱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전자칠판을 앞세워 에듀테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1만

여 대를 공급하기도 했다.

LG 전자칠판은 55~98형의 라인업으로 다양한 교육 공간에 맞춤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자료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되고, 도형·도표 등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해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다.

대화면 터치스크린은 최대 40곳의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제품에 탑재된 앱을 활용하면 최대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수업 중 학생들의 결과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제주항공, 韓日 노선 시장점유율 1위

국내 소비자들이 제주항공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1~10월 한일 노선에서 총 315만3963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한일 노선 승객(2056만명)의 15.3% 수준이다.

이는 국적 항공사 중 1위인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간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 중에 가장 높다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인천, 부산발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16개의

한일 노선에서 주 22회 운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부산~삿포로 노선에 신규 취항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는 무안~나가사키 노선에도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가까운 곳으로 짧게, 자주 여행을 떠나는 트렌드와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견고한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단거리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가장 저비용항공사(LCC)다운 항공사로서 본연의 사업 모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성차별부터 폭력까지, 선 넘은 자극 웹툰업계, 매출 하락에 무너진 도덕성

독자들 향의 빗발·불매 운동
경쟁 심화에 자극적 콘텐츠 생산
사회적 책임보다는 매출 집착 비판
유통화 감소 속 콘텐츠 질 하락 위기

웹툰업계가 연일 웹툰 작품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0월 네이버의 '지상최대공모전' 출품작 '이세계 풍풍남'이 성차별로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봄툰이 연재를 예고한 '역지사지'가 불법촬영, 성폭력, 수간 등을 내용으로 삼으며 독자들의 향의가 빗발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웹툰업계의 경쟁이 심화하고 유료 독자들의 수가 줄어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웹툰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웹툰 플랫폼 봄툰이 지난 22일 작가 폴닉의 웹소설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웹툰 '역지사지'를 단독 공개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웹소설 '역지사지'는 동성애를 바탕으로 한 웹소설로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문제는 해당 작품의 주인공이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유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수간 등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 없이 태연하다는 데 있다. 봄툰은 이번 작품 '역지사지'를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활발하게 X(구 트위터) 등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알리고 있는 김모(32)씨는 "웹툰화 될 예정인 역지사지는 일부 마니아를 중심으로 구독이 일어나는 BL(남성 동성애를 다룬 장르)이라 네이버 웹툰 불매 때 보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 또한 심각하지만 미성년자 여성 등을 향한 성폭력의 수준은 일반적인 범죄조차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웹툰업계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작품과 다양한 편견을 담은 작품은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달 네이버 웹툰은 지상최대공모전 예선전을 통과한 작품



키다리스튜디오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봄툰'에서 공개될 예정인 웹소설 원작 웹툰 '역지사지'의 홍보 영상과 네이버 웹툰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일으켰던 공모전 예선 통과 작품 '이세계 풍풍남'의 한 장면. /웹처

이세계 풍풍남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세계 풍풍남은 주인공 남성이 아내로부터 다양한 착취를 경험했으나 또 다른 세계로 가서 엘프 여성들과 살아가는 내용의 웹툰으로 내용과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며 문제가 됐다.

해당 웹툰이 예선을 통과한 후 대대적인 네이버 웹툰 불매 운동이 일었고 실제로 유의미한 지표상 변화가 나타났다. 네이버 웹툰의 월간 이용자 수는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 2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지난 2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404만명으로 지난달 1일(455만명) 대비 11%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일(486만명)에 비해서는 16.9%까지 줄었다.

이세계 풍풍남은 결국 최종수상에 실패했고 지난달 22일 네이버 웹툰 측은 "최근 공모전과 관련된 이슈로 독자 및 웹툰 창작자 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웹툰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작품이 등장하는 데에는 업계 내 경쟁 심화 및 유료 구독자 수의 급감, 작품 검수 가이드 라인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4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웹툰을 유료로 결제한 독자의 월평균 지출액 1000~3000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1만원 미만'이 22.8%, '3천~5천원 미만'이 18.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바에서는 5000~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3%로 1위를, 1만~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9.8%로 2위를 차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웹툰에 3만 원 이상 쓰는 고액 소비자 비율도 15.7%에서 5.6%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웹툰작가들의 작품을 검수하고 담당하는 PD인 A씨는 "현재 웹툰업계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태프들로 인해 어려움이 감춰지고 있다"며 "수준이하의 작품임을 모르지 않지만 실제 지표가 살펴보면 논란이 되고 문제적인 작품일수록 구독과 매출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내 검수를 가장 많은 단계로 구분하는 곳 또한 2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검수의 대부분은 오타와 불분명한 표현, 아동성에 등 극단적인 내용에 대한 감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B "AI와 대화하고 그림도 그려요"

Btv 잼, IPTV 업계 첫 도입

SK브로드밴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영어로 대화하는 서비스 Btv 잼(ZEM)의 '살아있는 영어'에 이미지 생성 기능 'AI드로잉(AI Drawing)'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아있는 영어는 영어 말하기 학습을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AI 원어민 캐릭터 '제플린'과 함께 파닉스부터 짧은 문장까지 학습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살아있는 영어에 챗GPT 3.5를 적용한 '살아있는 영어 프리토킹'을 선보인 이후 살아있는 영어의 이용자는 2.1배, 이용건수는 1.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제플린을 만든 에듀테크 기업 '아키핀'과 협업해 IPTV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로 영어 발

화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주는 AI드로잉 기능을 도입했다.

AI드로잉은 학습자 레벨에 맞춰 구성했다. 낮은 레벨 학습자는 주어진 문장을 따라 읽으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높은 레벨 학습자는 자유로운 단어 구사와 문장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업데이트에 한국어와 영어 중 어떤 말로 해도 알아듣는 한영혼용 음성인식엔진도 적용했다. 이용자가 제플린과 대화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말해도 제플린이 영어로 알려준다.

이강희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 마케팅 담당은 "'살아있는 영어'는 아이들에게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집에서 무료로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KT, '3D 쇼룸'으로 스포츠 굿즈 생생 쇼핑

클라우드와 스캐닝 기술 결합

KT가 시·공간 제약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KT 스포츠 3D 쇼룸'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KT 스포츠 3D 쇼룸은 KT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과 시각 기술 전문기업 '비빔블'의 최첨단 스캐닝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쇼핑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3D 뷰'를 통해 상품을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3D 쇼룸에서는 내년 1월 21일까지 Kt 위즈, KT 소니북, KT 폴스터 등 스포츠 구단의 인기 굿즈와 한정 상품을 판매한다. KT 폴스터 굿즈 15만원 이

상 구매한 고객 선착순 20명에게는 프로게이머 데프트 선수의 한정판 키캡 세트를 증정하며, 구단 인스타그램 구매를 인증하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Kt 위즈 굿즈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5명에게는 Kt 위즈 선수 유니폼을 제공한다. 구매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Kt 위즈 선수 친필 사인볼을 증정한다.

김병국 KT 디바이스본부장 상무는 "앞으로도 국내 실력 있는 비주요테크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가상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KT가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KT 스포츠 3D 쇼룸'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KT 스포츠 3D 쇼룸' 이미지. /KT

차세대 배터리 4대 핵심 기술개발 성과 공개

과기부, 이차전지 R&D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민관협약체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체는 정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정책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협약체에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삼성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이차전지 주요 기업과 전기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은 산업기술 동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이차전지 민관협약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한편,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이차전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과공유회는 산학연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된 연구 성과 발표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 가지 핵심사업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 차세대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사업,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등 진행사항이 발표됐다. /이혜민 기자

LGU+, 데이터 인프라로 AI·빅데이터 혁신

KISTI와 '국가 연구 데이터 허브' 구축

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수도권 연구 데이터 허브를 조성한다.

LG유플러스는 KISTI와 국가데이터교환노드(NDeX) 구축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NDeX는 민간·공공 클라우드 등 여러 네트워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데이터 대용량 교환에 최적화돼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부 및 연구망을 운영하는 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 측

LG유플러스와 KISTI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평촌 메가센터'에 NDeX를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고성능 네트워크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간 NDeX 상호 연결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KISTI가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LG유플러스가 설계·구축·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AI 인프라와 KISTI의 초고성능 국가 연구망을 결합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플랫폼 영역에서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대형-중소형 증권사, 올해 해외 수수료 수익 양극화 '심화'

미래에셋증권, 전년비 80% 늘어
삼성·키움증권, 각 51%·57% ↑

카카오·유안타증권 등 성장세에도
전체 수익 비중 단 3%선에 그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대거 옮겨가면서 증권업계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 간 관련 수수료 수익 격차는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소형사들의 관련 수익비중은 업계 전체의 5%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부문에서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3분기까지 누적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1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삼성증권(1454억원)과 키움증권(1294억원)도 각각 51%와 5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KB증

〈증권사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입 순위〉

(단위: 백만원)

순위	회사	2024년 1~3분기	순위	회사	2024년 1~3분기
1	미래에셋증권	180,191	13	한화투자증권	2,429
2	삼성증권	145,347	14	엘에스증권	2,394
3	키움증권	129,403	15	메리츠증권	1,951
4	토스증권	114,089	16	유진투자증권	1,683
5	KB증권	76,508	17	교보증권	1,564
6	NH투자증권	76,415	18	IM증권	769
7	한국투자증권	76,145	19	현대차증권	679
8	신한투자증권	58,124	20	IBK투자증권	570
9	하나증권	18,077	21	SK증권	415
10	대신증권	14,301	2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34
11	카카오페이증권	10,246	23	상상인증권	6.5
12	유안타증권	6,073	24	다올투자증권	1.9

*12월 결산법인 대상.

/각 사별 공시자료

권(765억원), NH투자증권(764억원), 한국투자증권(761억원) 역시 전년 대비 각각 82%, 35%, 6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

식시장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미국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평균이 1.5bp(1bp=0.01%포인트)인데 비해 해외주식의 경우 6~8bp로 높고 환차

익 수수료까지 수취해 리테일 부문의 효자 부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비해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비중은 대형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212%), 유안타증권(72%), 교보증권(82%) 등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소형사들의 전체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 비중은 단 3%선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격차는 대형 증권사들이 고액자산가 등 차별화된 리테일 고객층을 보유하는 등 점유율 방어 능력이 돋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6대 대형증권사가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형 증권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객 기반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형사들이 이에 맞서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원하는 목표환율에 실시간 매수·매도환율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기존의 리테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해외 파생상품 강화, 세금 혜택 제공, 해외 투자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중소형사 입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자동차株, 자율주행 규제완화 수혜 기대감 ↑

현대차 6.31%, 기아 6.11% 증가 올라
美 관세정책 빚겨갈 가능성 높아
주주환원 모멘텀도 상승동력 꼽혀

'트럼프 리스크' 종목으로 꼽혔던 자동차주가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축소,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밸류업' 우등생인 만큼 주주환원 모멘텀도 증가 회복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18일~25일)을 기준으로 현대차는 6.31%, 기아는 6.11%씩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두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관련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관세를 혹은 면제로 수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10~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엮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권 1기에서도 한국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미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9.34%, 기아는 3.51% 떨어졌다. SK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23년 미국 수출 차량은 약 53만대로 같은 해 미국 시장 판매량의 61% 수준이며, 기아 역시 44% 수준에 달한다.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50%를 상회하는 상황인 만큼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10%의 관세를 현대차·기아가 100% 부담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하락 폭은 13~17% 수준"이라며 "이 또한 미국 공장 생산 확대, 기아 멕시코 공장 활용 등을 이용해 최소화 가능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대형 SUV 모델인 '아이오닉 9'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빚겨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일 당일에만 현대차는

5.34%, 기아는 5.57% 급등하기도 했다.

윤 연구원은 "현대차는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셔널과 협력해 2026년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정 완화에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성장 로드맵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한다는 평가다.

주주환원 모멘텀 역시 자동차주의 주요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5.9%, 6.5%로 높은 편이며, 총주주환원 수익률도 두 종목 모두 8%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업종의 주요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졌고, 성장성 프리미엄을 차치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가는 현재의 박스권 '하단'에서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반으로 상승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현대차그룹의 특별 주주환원, 3월 말 배당, 내년 상반기 자기주식 매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머니마켓액티브펀드' 순자산 1兆

초단기채 펀드 중 순자산 규모 1위

KB자산운용은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초단기채 펀드 중 순자산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는 약 3개월 이내의 고금리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대표적인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대비 편입자산의 규

제가 적어 적극적인 자산 편입이 가능하다. 단기채권 및 기업어음(CP)에 60% 이상, 유동성 자산 등에 40% 이하로 투자하며,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상 국내 단기채권형 펀드는 환매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는데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는 하루 빠른 2일 만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높다. 또한 MMF에 준하는 듀레이션을 통해 단기채권 펀드 대비 금리 변동성이 낮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초단기채 상품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선보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형 상품들이 대부분 ETF 중심이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 또한, 최근 순자산 2조원을 돌파하면서 'KB 머니마켓 시리즈'의 전체 순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에 '티엠씨' 선정

한국거래소는 올해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으로 티엠씨, 우수기업으로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사옥에서 '2024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과 '환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에는 티엠씨가, 우수기업으로는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가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中企 근로자 노후준비 돕는다

'제1회 푸른씨앗 파트너스 데이'

미래에셋증권이 '제1회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 전담 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위탁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푸른씨앗 전담 운용기관으로 제도 시행



한수일 NH-Amundi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장(왼쪽)과 구종회 미래에셋증권 법안솔루션 부문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후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수익률 13.29%(세전), 지난해 6.97%(연, 세전)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지난달 말 기준, 푸른씨앗 적립금 규모는 7433억원이며, 가입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각각 2만803개소, 9만5970명에 이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수익률이 입소문을 타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승선 미래에셋증권 OCIO(외부위탁운용관리)솔루션본부 본부장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추억 속 '사이월드' 돌아온다 토종 SNS 부활 신호탄 되나

사이커뮤니케이션즈

3D 기반 새로운 사이월드 개발

카카오 친구연결 통해 반등 모색

토종 SNS의 조상 격인 사이월드가 내년 또 한 번 부활을 준비 중이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의 압도적인 성장 속에서, 토종 SNS들이 생존 전략을 모색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SNS 시장은 글로벌 SNS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국내 SNS 사용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SNS는 숏폼(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유튜브는 월간 사용 시간이 18억 시간에 달하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또한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작년 대비 42.1% 성장률을 기록, 네이버를 제치



사이커뮤니케이션즈(이하 사이컴즈)가 기존 사이월드 소유 법인인 사이월드제트로부터 사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커뮤니케이션즈

고 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주요 SNS들은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1년간 MAU가 지난해 10월 대비 539만명에서 336만명으로 43%나 감소했으며, 네이버도 최근 1년간 사용자 이용 시간이 9.7%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사이월드와 카카오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사이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기존 사이월드자산을 사이월드제트로 부터 인수하고, AI와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한 3D 기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연결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와의 연결을 재활성화하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카카오톡 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쉽지 않다. 해외 플랫폼들이 숏폼 콘텐츠, AI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토종 SNS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 동력이 저하되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케미칼, 순환 재활용 플라스틱 상용화

국순당 프리미엄 전통주 용기 적용

SK케미칼과 국순당이 순환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주류 용기를 개발, 상용화했다.

SK케미칼은 국순당의 프리미엄 전통주 용기에 순환 재활용 페트(CR-PET, Circular Recycle PET)를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중합 기술 기반 순환 재활용 페트(PET) 소재가 전통주 용기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케미칼과 국순당은 전통주 용기에 사용하던 석유화학 기반 페트(PE T)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7월 MOU를 맺고 순환 재활용 페트(PET) 소재를 적용한 용기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양사는 전통주 용기 개발을 위해 순환 재활용 플라스틱인 ‘스카이펫(SKYPET) CR’을 소재로 선정하고 사출 성형성, 내열성, 내충격성 등 주류 용기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시 적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용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전통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용기를 개발해냈다.



순환 재활용 페트(CR PET)를 적용한 제품 ‘옛날 막걸리 古’ /SK케미칼

SK케미칼의 순환 재활용 페트 ‘스카이펫CR’는 페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되돌리는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로, 페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지만 석유 기반 PET 소재와 동일한 품질과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 해중합 방식의 순환 재활용 기술은 페플라스틱을 분해한 원료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SK케미칼과 국순당이 함께 개발한 용기는 프리미엄 전통주 ‘옛날 막걸리 古’ 제품에 적용됐다. 국순당은 수출 제품군 용기에도 ‘스카이펫(SKYPET) CR’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금융꿀팁”에서 달라진 추심제도 확인하세요”

정확한 채무정보 확인 방법 등 소개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 등을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 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

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대 이동통신사(SK·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 기업 기념비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제막식

SK이노, 석유류 공급 등 ‘에너지 주권’ 기여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기업 성장 “대한민국 산업발전 선두에 설 것”

SK이노베이션이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계에 석유류와 같은 에너지는 물론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단지 출범 60주년을 맞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로 시작으로 산업수도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이자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는 울산공업센터부지에 국내 최초의 정유

공장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에너지 주권 확보에 초석을 놓았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972년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공장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가동하고 1991년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제조시설, 파라자일렌(PX) 제조 시설을 포함한 9개의 신규공장을 준공하며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국내 최초 정유공장으로 시작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약 250만평(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부지에서 단일 석유화학공장 기준 원유정제 생산능력(Capa) 세계 2위 규모인 하루 8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것”이라는 고(故) 최충현 SK 선대 회장의 경영철학을 답아 지난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1020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하고 울산시에 기부 채납한 후 장기축제를 비롯한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끊임 없이 이어왔다.

울산 산업의 역사와 경제 발전을 함께한 SK이노베이션은 울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까지 모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회사의 모태인 울산의 미래와 사회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플랫폼인 울산포럼을 3회째 지속하며 지역 문제 해법과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길 SK 울산CLX 총괄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선두에 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감원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신속 조사”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경찰수사 지원

지난 8월 15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수백건 달했던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의 광고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

바일앱 등에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기후변화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지원 확대

환경부, 공기질 관리 5개년 계획 발표
민간계층 지원·에너지 효율 강화
지하철·조리공간 공기정화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 지하철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5년간 학교, 지하철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2019년과 비교해 17% 넘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측면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연구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뉴시스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또 각 지하철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역사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 정보는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민간업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연료를 쓰는 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조리 공간 단계별 관리 체계의 구축도 추진한다. 조리 매연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 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수출 품목별, 리스크 점검·대응책 모색

산업부,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을 위주로 견조한 수출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계를 중기까지 확장해 대외 교역환경을 정밀 진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로, 10월 누계로는 396억달러 흑자다. 이는 2018년 608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15

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10월 누적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달러(+47.2%)를 기록했다. 2위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591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3년 580억달러를 한해 만에 재경신했다. 선박 수출도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달러를 기록, 주요 품목 중 컴퓨터(+67.6%, 103억달러),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 차관은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 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생명 품은 물길, 하천 생태계 복원"

농어촌공사, 내수면 어도관리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생명을 품은 물길'이라 불리는 어도(魚道)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4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도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이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 시설이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어도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선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잘 담아낸 전희철 씨의 '봄의 어도'가 대상을 수상했

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전동희 씨의 '여주보의 여름'과 이항구 씨의 '은어의 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은 조기정 씨의 '어도의 하루'가 각각 선정됐다.

이후 이어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에서 유인영 중앙내수면연구소 상무는 '어(魚)로드 웹'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어도 실태조사 시스템과 모바일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안해 주목 받았다.

김영득 농어촌공사 부장도 어도은 어류 이동 통로를 넘어 지역의 생태적·경제적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 이사는 "공사는 어도와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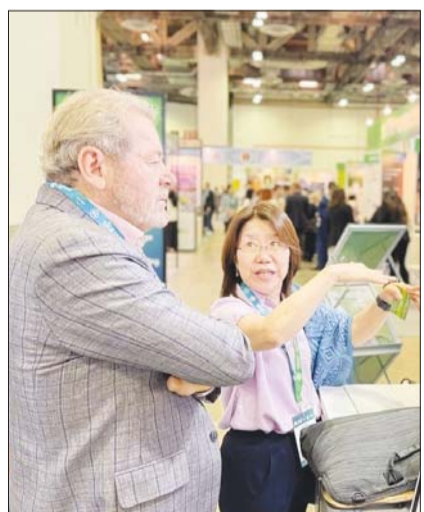
K-스마트팜, 싱가포르 수직농장 개척 첫발

농식품부, 'AFTEA' 한국관 운영
싱가포르 현지 식품기업과 MOU
57개국 바이어와 220건 수출상담

정부는 경작지가 국토의 1%도 안되는 싱가포르에 수직농장 등의 K-스마트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자국내 식품생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 농식품기술 관련 박람회(AFTEA) 행사장에 한국관을 조성·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6개사(교린, 다모아텍, 대영지애스, 유비엔, 플랜티팜, 헬퍼로보텍)가 참가했다.

AFTEA에서 운영한 한국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기업 간 수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농식품기술 관련 박람회(AFTEA) 행사장에 조성된 한국관. /농식품부

한국관에는 57개국의 바이어가 방문해 총 220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교린'은 현지 식품 유통기업 'DIMUTO'와 실내 스마트팜 자재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서울 지하철 유휴공간에서 수직농장을 운영 중인 플랜티팜의 기술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의 한 관계자

는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전체 국토의 1% 미만인 도시국가"라며 "수직농장 등 실내에서도 작물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자국내 생산을 통한 식품 공급이 현재 10% 수준이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30 by 30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AFTEA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구 매력력이 높고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많아 향후 K-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출 신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래 위한 기후행동, 협력방안 논의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성과 공유

환경부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대국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 토론회는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

획이다.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인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 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경북도, 인구교육 프로그램 통해 저출생 극복 나선다

북건복지부 등 3개 기관과 맞춘 현재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 공유 결혼·출산 꺼리는 문화 개선 바차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경북교육청,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들 4개 기관은 25일 경북도청에서 '인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태연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의 인구 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이들 기관은 ▲경북 특색형(저출생 극복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인구교육 교과목) 운영 및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경북교육청,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이 25일 경북도청에서 '인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 세대 인구교육 확산 ▲경북 특색형 학교,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핵심 교육 과제로 선정하고 유·초·중·고·대학생, 지역주민, 민간 단체 등에 현재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 공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문화 개선 등에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인구문제 해결이 단

순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구문제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인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북만의 특색 있는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구교육으로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내 현장을 돌며 대학생, 미혼남녀, 양육 부모, 난임 가족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경제적 부담 감 정책과 함께 결혼·출산을 환영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어려울 때부터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경북도가 중앙부처와 손잡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이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쌀가루 지역자립형 소비모델 구축

진도군이 농촌진흥청의 '2025년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은 가루 쌀과 가공 쌀 생산단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지역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가공용 쌀 전문 제분 시설,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 제품 개발, 상품화와 교육·자문 등의 지원으로 쌀가루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서비스

창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와 협업해 경남 최초로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지도상에 창원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의 메뉴바를 누르고 '초정밀 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추진

부산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화재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계획은 난방용품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된다.

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 오는 12월부터 자체 또는 기관 간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액 6.4억弗

지난해 연간 수출액 넘어선 규모 김, 3.6억弗 기록 '수출품목 1위' 美 30.2% ↑... 주요 시장 성장세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억405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6억3164만 달러)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품목별로 신선농산물은 15.5%, 축임산물 47.7%, 수산물 26.6%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신선농산물은 쌀과 배, 파프리카, 배추, 버섯류, 농산 가공품은 유자차와 음료, 김치, 장류, 과자류, 축임산물은 분유와 닭고기, 수산물은 김, 전복, 미역, 톳 등이다.

특히 김은 3억685만 달러를 기록하

며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복 3719만 달러, 분유 3295만 달러, 유자차 2158만 달러, 미역 1946만 달러 순이다.

시·군별 수출 실적은 목포가 1억 1811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나주(1억 341만 달러), 고흥(9799만 달러), 신안(8866만 달러), 완도(6899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30.2%, 일본은 20.7%, 러시아는 18.3%, 중국은 8.7% 각각 증가하며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품질 좋은 전남 먹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맛과 품질, 글로벌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아 지속적인 수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中企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SME WEEK 中企 지원 프로그램

포항시(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4월 시작으로 5회째 맞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 물류 최적화 및 업계 최신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특강 뿐만 아니라, 이들에 걸쳐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공정 ▲스마트 품질 3개 세션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두고 고민하는 기업 혹은 구축은 완료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



포항시(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1:1 컨설팅도 제공되며, 센터 내 장비 투어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장은 "이번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플 등과 긴밀히 협업해 성공적인 상생협력사업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9곳 선정

선정기업, 1년간 166명 신규채용

김해시는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9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우수한 고용 실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쓴 관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64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일자리 성장성과 안정성, 기업경영 건전성, 직원복지와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인정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 수여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0.5%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시

책 우선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8월 공고와 함께 신청기업을 접수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회의 결을 거쳐 ▲성문 ▲삼성금속 ▲금륜이엔지 ▲엠제이인더스트리 ▲신세기메디텍 ▲행성 전례공장 ▲네오테크 ▲대현상공 ▲제일전자공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최근 1년간 166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고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고 복리증진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전략 모색

내달 5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사천의 발전을 견인할 '사천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인 사천시만의 특색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류재영 전 국토연

구원 본부장이 '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하고, 박태연 광운대학교 교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방안'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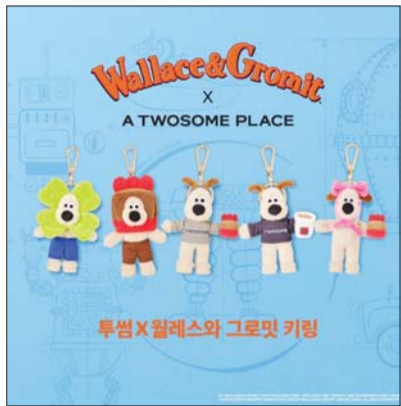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5월 주거·산업·교육·연구 개발 등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현면 일원 5.6㎢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소비자 레시피 제품 출시 등 취향반영 '나노 트렌드' 마케팅

식음료업계, MZ 특성 반영 소통

풀무원다는 그릭 시그니처요거트 인스타서 토핑 공유 이벤트 진행
농심 '신라면 톱바' 봉지면 출시
오리온 '찍먹 오!감자' 선보여
투썸 '월레스와 그로밋 키링'
베이스킨라빈스 모남희 키링 판매



투썸플레이스(왼쪽부터), 공차코리아, SPC베이스킨라빈스, 풀무원다는.

식음료업계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만들기 보다 본인의 개성과 취향을 즐기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특정 식품에 나만의 레시피를 추가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모디슈머'와 가방, 휴대폰 등을 꾸민다는 뜻의 '백꾸'와 '폰꾸' 등 다양한 용어가 SNS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식음료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세분화된 취향을 반영한 '나노 트렌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여러 토핑과 잘 어울리거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거트 제품을 출시하거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레시피를 제품화하고,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굿즈를 출시하는 것이다.

발효유 전문 기업 풀무원다는의 '그릭 시그니처 설탕 무첨가 플레인 150g'은 좋아하는 토핑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기에 좋은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릭 시그니처 설탕 무첨가 플레인 150g'은 그릭 특유의 진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단독으로도 섭취하기 좋으며, 오직 우유 유래 당만을 함유해 담백한 맛으로 다양한 토핑과도 잘 어울리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단백질 함량 11g으로 건강한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으며 한 번에 먹기 적당한 용량인 150g으로 간편함까지 더했다.

최근 풀무원요거트 그릭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가 즐겨 먹는 토

핑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그릭 시그니처 150g으로 더욱 맛있는 요거트 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합을 제안하고 있다. 꿀, 그래놀라, 제철 과일 등을 활용한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 대용 토핑을 중심으로 마카롱, 초코볼, 과자 등 디저트를 연상시키는 조합까지 다양한 토핑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공유된 조합을 참고해 취향에 맞는 그릭 시그니처를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인기 모디슈머 레시피인 투움바 파스타에서 착안한 신제품 '신라면 톱바'를 봉지면으로 출시했다. 앞서 출시한 신라면 톱바 콘사발면이 출시 18

일 만에 210만 개 판매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자, 봉지면을 요청하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품을 선보였다. 봉지면으로 출시된 신라면 톱바에는 매운맛의 엑상스프와 생크림·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분말 스프가 담겼다.

오리온은 자신만의 이색 레시피를 만들어 소개하는 '내시피쪽(나의+레시피)'의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찍먹 오!감자 스위트치리소스'를 출시했다. 단종된 '오!감자 딥 스위트치리맛'을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인기 메뉴인 어니언링과 칠리소스 조합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가방, 휴대폰 등을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굿즈를 출시하는 기업도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월레스와 그로밋'과 협업한 굿즈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투썸X월레스와 그로밋 키링'은 그로밋에게 다양한 의상을 입혀보는 '옷 입히기' 콘셉트의 인형 키링이다. 하나의 키링 세트에는 그로밋 키링과 의상 세트가 별도로 포장돼 있으며 서로 다른 세트에 포함된 의상도 조합해 볼 수 있다.

SPC베이스킨라빈스는 키링 브랜드 '모남희'와 협업한 '미니 피규어 키링'을 '워크샵 바이 베이스킨라빈스'를 통해 한정 판매 중이다. '모남희'는 키치한 디자인과 소장 가치가 있는 키링 및 패키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미니 피규어 키링'은 워크샵 로고가 새겨진 베이스킨라빈스 핑크 바지를 입은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5년 소비 트렌드 핵심은 기성 제품에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도핑경제'다"라며 "음식부터 패션 소품, 일상 용품까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 3세 경영 속도... 신상열, 전무 승진

임원인사 '남매 동반 승진'

상품마케팅실 상무에 신수정
미래사업실 역할 강화될 전망

농심이 3세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농심 임원 인사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상무)이 전무로 승진했다. 동시에 신 회장의 장녀 신수정 음료 마케팅팀 담당 책임도 상품마케팅실 상무로 승진하며, 오너 3세가 나란히 임원직에 이름을 올렸다.

신 전무는 1993년생으로, 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후 2019년 농심 경영기획팀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으며, 경영기획팀 부장과 구매담당 상무를 거치는 등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올해 1월 신설된 미래사업실을 맡아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 상무는 농심홀딩스 지분 1.4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신동원 회장(42.92%),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



신상열 농심 전무

(13.18%), 신윤경 씨(2.16%) 및 재단과 사내 기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이다.

농심은 이번 인사를 통해 3세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기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동원 회장은 라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푸드, 비건푸드, 건강기능식품 등을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미국 매출을 3배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신 전무의 승진은 미래사업실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심은 2023년 말, 경영기획실 산하 성장전략팀과 N스타트업을 통해 미래사업실을 신설했다. 미래사업실은 M&A와 신사업 추진 기능,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신 전무는 초기에 구매실장과 겸직했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는 미래사업실장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편, 농심이 오너 3세 신 전무가 이끄는 미래사업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에는 원가 부담과 성장 둔화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농심의 연결 기준 매출은 2조58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나, 원가 부담 심화로 영업이익은 1731억 원으로 17.6%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신동원 회장이 2021년 농심 회장직에 오른 만큼, 이번 인사가 본격적인 오너 3세 승계라기보다 신 회장과 신 전무가 함께 경영하는 부자(父子) 경영 체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신원선 기자

GS25, 숙취해소제 이달 매출 16% 경증

비음료형 매출 성장세 급증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11월 숙취해소제 매출이 전월 대비 15.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취해소제 월별 판매지수를 분석한 결과 12월이 평균 11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1월, 10월, 5월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11월 주차별 매출을 보면 2주 차 매출은 전주 대비 6% 증가했으며, 3주 차에는 11%로 상승 폭이 커졌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순으로 매출이 높았고, 시간대별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 음료형 숙취해소제뿐만 아니라 환, 젤리 등 비음료형 숙취해소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이 GS25에서 숙취해소제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지난 2022년과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음료형 숙취해소제 매출은 각각 28.1%, 14.6% 증가한 반면, 비음료형 숙취해소제는 각각 54.0%, 25.2%로 더 큰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구성비에서도 비음료형 숙취해소제는 지난 2021년 29.8%에서 2023년 34.4%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롯데월드푸드, 과일우유 '꼬미루미' 3종

바나나·딸기·믹스베리

전체 우유 시장과 달리 가공우유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롯데월드푸드가 우유에 과일만 더한 어린이 우유를 선보인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20년 2조4000억 원에 달했던 전체 우유 시장은 2023년 2조1000억 원대까지 규모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공우유는 2020년 6600억 원에서 2023년 7100억 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가공우유는 제품마다 원유 함량과 첨가물이 천차만별이라 어린이용 우유를 고르는 부

모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롯데월드푸드 파스퇴르는 과일로만 단 맛을 낸 진한 과일우유 '꼬미루미' 3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제수(물)를 넣지 않고 파스퇴르 1급 A 원유 93%에 과일로만 단맛을 낸 건강한 가공우유다.

아이들이 한 번에 먹기 좋은 125ml 용량에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다. 바나나, 딸기, 믹스베리 3종으로 과일로만 맛을 내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딥테크 스타트업 6곳과 '동반성장'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이달 말 '딥업데이'서 협력 논의

현대백화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 기관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은 현대백화점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과 솔루션을 실증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기회를 얻게 된다. 동시에 현대백화점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신규 공간 개발에 접목, 고객들에게 새로운 리테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딥업데이' 행

사를 열어 유망 스타트업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디자인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왔다. 올해까지 19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이 참여해 총 29개 신규 콘텐츠를 선보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렉라자’ 유럽 품목허가 권고… 유한양행, 글로벌 진출 ‘훈풍’

존슨앤드존슨 ‘리브리반트’ 병용 미국 이어 유럽시장 첫 진출 사례
렉라자 美 판권 820억 4분기 수령 누적 기술료는 1.5억 달러 달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앞세워 유럽 의약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허가 권고 의견을 받았다. 렉라자가 최종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국산 항암제가 미국 의약품 시장에 이어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은 앞서 올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실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9월부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데, 렉라자 미국 제품명은 ‘라즈클루즈’이며 한 달 복용분인 30정 기준, 약가는 약 1만8000달러(약 2400만원)이다. 1년 약가는 21만6000달러(약 2억9000만원) 수준으로, 경쟁 약물인 오시머티닙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렉라자가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렉라자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존슨앤드존슨이 갖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국에 대해서만 권리가 제한됐다.

다만, 유한양행은 올해 4분기 중 렉

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6000만달러(약 82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한양행이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받은 누적 기술료는 2020년 3500만 달러, 2021년 6500만 달러 등 총 1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향후 연간 50억달러(약 6조 64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은 1조5717억원, 영업이익은 667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0.5%,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31.3% 증가한 규모다. 누적 순이익은 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9% 커졌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매출 증가와 라이선스 수익 증가 등이 매출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한양행

의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라이선스 수익은 1013억원으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7억원, 11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 3분기에만 981억7000만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96배 이상 급증했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지난 2015년 7월 국내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와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비임상 및 임상연구 등에 집중했다. 이후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렉라자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안센에 기술수출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왔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출발점에 놓고 해외 시장 공략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온은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이 고객 참여형 문화 행사로 ‘살롱 설화수’를 새롭게 기획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고객참여 프로그램 ‘살롱 설화수’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12월 11일부터 3일간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살롱 설화수’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살롱 설화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고객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내면과 외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소통하며 영감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살롱 설화수에서는 ‘청록화’의 신선이 플로리스트가 대담을 진행한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플라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담에서는 작가의 플라워 장식을 통해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북촌 설화수의 집 공간도 플라워 장식물로 채워졌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홀리데이 리스’ 만들기 교실도 마련됐다.

‘살롱 설화수’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설화수 홈페이지 내 ‘북촌 설화수의 집’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번째 살롱 설화수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하반기 ESG 경영평가 최고 등급 ‘AA’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로부터 ‘2024년 하반기 ESG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원료의약품 사업회사 에스티팜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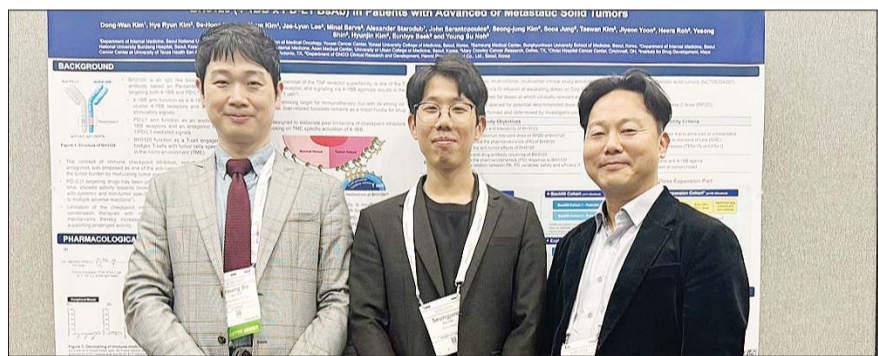
서스틴베스트는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진행한다. 또 상장사 자산규모별로 ESG 베스트 기업 100곳을 함께 발표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3사도 A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 기업 그룹에서 ESG 베스트 기업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해당 그룹 30개 기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표적항암+면역세포 활성화 ‘항암신약’ 순항

췌서 ‘BH3120’ 성과·임상경과 발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적용



지난 6일~10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에서 한미약품 ONCO임상팀의 노영수 이사(왼쪽부터)와 김성중 연구원, 북경한미약품의 이경우 연구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에서 면역항암제 ‘BH3120’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항암신약이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한미약품은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화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

BH3120 단독 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BH3120 임상 1상 책임 연구자인 김동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해당 연구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혁신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임상 1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데,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H3120은 단독 요법뿐 아니라, 기존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요법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도 계획돼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H3120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을 평가하는 임상 1상 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받았고 오는 2025년 초에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온콜로지(항암)임상팀 노영수 이사는 “BH3120 임상은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면역항암제 영역에서 독자적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활용하는 한미의 첫 글로벌 임상 연구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바이컬러 “치아미백 간편 관리 하세요”

애경, 화이트닝 폴리셔 등 3종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뷰티 덴탈 브랜드 바이컬러에서 ‘치아미백 관리’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집에서 간편하게 치아 미백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들로, 원하는 미백 효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치약처럼 사용 가능한 ‘화이트닝 치아미백제’, ‘화이트닝 폴리셔’, ‘치아미백 스페셜 관리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화이트닝 치아미백제는 치아 미백 기능을 갖춘 유효성

분인 과산화수소를 함유해 누런 치아를 밝고 환하게 가꿔준다.

화이트닝 폴리셔는 치아에 딱 맞는 크기의 광택제로 해당 제품이 미백 치약 및 치아미백제의 도포와 밀착을 도와 치아 구석구석에 미백 효과를 전달한다. 또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밀랍한 실리콘 팁을 적용해 부드러운 치아 관리가 가능하다.

치아 미백 스페셜 관리 세트에는 미백 겔과 전용 마우스 피스가 담겼다. 미백 겔을 치아에 도포하고 전용 마우스 피스 착용한 뒤 30분간 사용 후 헹구면 된다.

/이청하 기자

센텔리안24, 뷰티컬리서 기획세트 출시

토탈 안티에이징·기미케어 2종

동국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컬리의 뷰티 전문 플랫폼인 뷰티컬리에서 ‘토탈 안티에이징 및 기미케어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트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기미애플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베스트 마데카 크림&스틱 기프트 기획세트’에는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마데카 크림 스틱 크림 등이 담겼다. 이들 제품 모두 동국제약이 독자



센텔리안24 ‘베스트 마데카 크림&스틱 기프트 기획세트’ /동국제약

개발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획세트 2종은 뷰티컬리 입점 2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특별 할인기간인 3만1900원이 적용된다.

/이청하 기자



NH농협금융

건강한 걸음 더 걷기 지구에 푸름을 더하기

NH헬스케어와 함께한
고객님들의 856억 걸음이
약1천만kg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고객을 더 건강하게 지키고
일상에 초록 세상을 더하는

생명사랑보험사
NH농협생명



NH헬스케어는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건강을 관리하는
NH농협생명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내맘같이 

 NH농협생명



KSD나눔재단, 부산 수산업계·취약계층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22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 수산업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인천~구마모토 노선 운항 재개

대한항공이 27년 만에 인천~일본 구마모토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인천~일본 구마모토 노선 재취항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 창원성민여고에 '별빛정원' 조성

현대위아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성민여고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정하고 오픈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창원성민여고 학생들이 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별빛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약 455㎡(약 140평)의 교내 옥상 부지에 숲을 꾸몄다.



승실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11관왕 달성

승실대학교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특허청 주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11관왕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실대는 배원규 전기공학부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박소윤·김휘중·한영웅 학생으로 구성된 '소중한 77' 팀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에 참가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림대 의료원, '영등포구 김장 한마당 축제' 참여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당산공원에서 열린 '2024 영등포구 김장 한마당 축제'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원이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림의료원에 따르면 이날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나눔봉사단,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주민 등 520여 명은 다함께 김장김치약 2900박스를 담았다.

현대차, 우수카마스터와 소아암 환아 치료 지원

2019년부터 이웃돕기 후원금 조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6420만원

현대자동차는 소아암 환아 지원 후원금 6420만원을 조성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대로 사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윤효준 상무, 현대차 국내사업지원실장 김경조 상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정원 총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판매 우수 카마스터가 참석했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판매 우수 카마스터와 함께 교통사고 유자녀, 저소득층 환아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김경조 현대차 국내사업지원실장(왼쪽부터), 윤효준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김대훈 현대차 세종청사지점 영업과장, 최진성 현대차 서대문중앙지점 영업이사, 신동식 현대차 세종청사지점 영업부장, 신정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총괄본부장, 박찬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5팀장, 김이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1팀장이 22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진행된 '현대 호프 온 휠스 TOP CLASS 매칭그랜트 기증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된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특별히 현대차의 북미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현대 호프

온 휠스(바퀴에 희망을 싣고)'와 연계해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다. '현대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가 미국에

서 전개하고 있는 소아암 퇴치 캠페인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여수앞바다에 잘피 2만주 추가 이식

미래세대와 지속가능 성장 모색

LG화학이 여수 앞바다에 잘피 2만주를 추가 이식하고 해양생태계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 사업으로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LG화학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팅스카본과 여수 대경도 바다에 지난해 1차로 이식한 잘피 5만 주에 이어 올해 2차로 2만 주를 추가 이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식한 여수 대경도 잘피 군락지는 42.7ha(헥타르)였던 면적이 올해 6월 45.5ha까지 넓어졌다. 늘어난 면적만 축구장 4개 크기



LG화학 임직원들이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서 잘피 2만주 추가이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인 2.8ha다. 올해 2만 주를 추가하게 되면 2026년에는 자연적으로 증가된 면적이 축구장 15개 크기인 10.0ha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잘피는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함

께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증한 3대 블루카본 중 하나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바닷속 탄소흡수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공인회계사회, 29일 '회계의 역사와 미래' 세미나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사전 접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9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회계의 역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회계 역사 및 회계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

수, 송샤오밍 중국 상하이 리신대학교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한국과 중국의 회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회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 회계업계가 한중 양국의 회계역사를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투명성과 신뢰를 쌓고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디지털 혁명 등 새로운 트렌드가 회계의 미래에 끼칠 변화를 알림으로써 회계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70주년 기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투증권, 여섯번째 '꿈 도서관' 개관

한국투자증권이 여섯번째 '한국투자 꿈 도서관'을 개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부산 사하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애아원'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 꿈 도서관'은 지역아동복지시설의 노후화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물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1호 도서관을 시작으로 안성, 전주, 음

성,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 왔다.

지난 22일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김현오 애아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내일을 꿈꿀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구김없이 자라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가운데)이 부산 애아원에서 열린 '한국투자 꿈 도서관' 개관식에서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왼쪽), 김현오 애아원 원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해머링 위시' 이벤트

서울 광화문의 랜드마크 '해머링맨'이 산타 모자를 쓰고 빨간 양말을 신은 모습으로 25일 시민들에 공개됐다. 해머링맨의 빨간 양말에 새해 소원을 적고 증강현실(AR)로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2024 해피뉴이어 해머링맨'을 통해 공공예술 가치를 확산하는 '해머링 위시' 이벤트를 1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머링맨이 신고 있는 빨간 양말에 새해 소원을 적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게시물 또는 스토리를 공유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세화미술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연말 선물키트를 받을 수 있다.

AR을 활용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머링맨 페이스 필터가 세화미술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업로드 예정이며 사진에 붙일 수 있는 해머링맨 지피(GIPHY) 스티커도 출시한다. 페이스 필터나 지피 스티커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에 세화미술관 계정을 태그해서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연말 선물키트를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인사

◆경북대학교 ◇단과대학장 ▲생활과 학대학장 권기영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종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재석

부음

▲김순약씨 별세, 강벽규·석규(서울아산병원 커뮤니케이션실 부실장)씨 모친상 = 25일, 영등제일장례식장 특 101호,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043-744-1144

▲홍금순씨 별세, 한선영(울산 삼산해솔청소년센터 관장)씨 모친상 = 25일, 굿모닝병원장례식장 VIP1호, 발인 27일 오전 8시, 052-256-7444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유사한 중복사업 난립 경계하고 골목상권 육성사업 차별화 하라”

서울시의회, 구획화·육성지원
내년 5억, 5년간 총 132억 투입
“골목상권 조직화, 성장기반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육성 지원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이 많으며 서울시에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억원을 들여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구획화·육성 지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기획한 사업으로, 이름 없는 골목상권에 명칭을 부여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통시장 특별법상 인정(등록)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흩어진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구획화를 바탕으로 신규 조직화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별 골목상권 1개

소이며, 사업 수행 주체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를 돕고 상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간담회, 우수 상권 벤치마킹 등으로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브랜딩 마케팅 교육과 실습, 상인 조직 운영, 상권 발전 방안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 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 지원 등으로 5억원만을 편성했다.

동 사업과 비슷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의 경우 유사 상권 사업이 이미 시행된 바 있고, 사업 추진의 한계에 봉착해 이번 예산안에는 빠졌다.

시의회는 “금번 예산안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과 비슷한 사업이 존재해 차별화된 전략과 특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시의 2025년 예산안에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83억2800만원) 사업이 포함됐다.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이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과 비슷하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로 영세 상인의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골목상권 조직화와 상인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유사 중복 사업의 난립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며 “로컬 브랜드 사업과 같이 유사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거나 차별화를 꾀하는 등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지평의 공원’. /서울시

성수 뚝개공원 공모전 당선작 20개 선정

서울시, 지평의 공원 등 3개 최우수상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뚝개공원 및 수변공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2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강변북로 상부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뚝개공원과 수변을 활용한 수상문화시설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5일~10월 11일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지평의 공원 ▲성수 온클라우드 나인(SEONGSU ON CLO

UDSNINE) ▲웨이브 오브 한강(Wave of Hangang) 3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수상(3개), 장려상(4개), 가작(10개)을 포함해 총 2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응모작들이 창의성 면에서는 우수했으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대상 수상작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수상자에게 상금과 서울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 가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을 준다. /김현정 기자

폐교대학에 장려금?... ‘떡튀 우려’ 비판

7개 교수·대학 단체, 입장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폐교 가속화 결과로 나타날 것”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추진하자 교수·대학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의 ‘떡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입법 시 향후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

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고 이날 교수·대학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산 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이른바 ‘떡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은)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할 수 있다”라며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

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고, 폐교 이전에 비해 폐교 이후의 대학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폐교 전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는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내달 16일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

수원컨벤션센터서 정책방향 모색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로, 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만들고 경기도가 추진할 여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는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

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11월 26일(화) 음력 : 10월 26일

수도권 날씨 9~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9, 동두천 8/10, 가평 7/9, 파주 7/9, 서울 9/10, 양평 8/9, 인천 9/10, 수원 9/10, 용인 9/10, 평택 9/10, 백령도 7/7

해돋이 / 07:23 | 해질 / 17: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러, 입대하면 빛 없애준다...최대 1억 3000만원 탕감
▲우루과이 대통령에 오르시 당선...5년 만에 ‘중도우파→좌파’ /사진 뉴스스

▲다이시바 지지율, 한달새 46%→31% 급락...‘퇴진위기’ 근접
▲美의회에 ‘친가상화페’ 의원 300명 포진



▲“트랜스젠더 군인 싹 다 추방”...트럼프, 취임 첫날 1.5만명 내쫓는다 /사진 뉴스스
▲영국도 관광세 도입 움직임...스코틀랜드·웨일스 중심 확산



식품업계 소비자 취향반영 '나노트렌드' 대세 L1



Life

유한양행 '렉라자' 앞세워 유럽 진출 박차 L2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선수단 후원... 사회 곳곳 온기 나눠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JT저축은행

JT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예아름저축은행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0년 9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하면서 SC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 상호명은 지난 2015년 J트러스트 그룹의 계열사에 최종 합류하면서 탄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JT저축은행의 슬로건은 '고객의 마음속에 퍼스트(First), JT저축은행'이다. 인터넷뱅킹 강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는 물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등 서민금융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민채 JT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팀 사원이 1사1교 금융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



JT저축은행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터.

◆ 금융교육에 '진심'...1사1교 저축은행

지난 2월 JT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손꼽혔으며 직원들이 금융 교육 강사로 직접 나서면서 표창자를 5명 배출했다. 금융 교육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다. 특히 동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분당경영고등학교와 1사1교 자매결연을 했다. 7년간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과 금융권 취업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 교육 이수 과정을 이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증도 지급했다. ▲금융권 취업 면접 요령 ▲면접 시 복장 ▲유의 사항 ▲자기소개서 첨삭 등 실제 취업 활동을 도왔다.

지난 9월에는 고3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및 금융권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인재경영과 전산, 재무부 탐방 및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석했다. 실제 면접 분위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압박 면접을 진행했다. 개선 사항은 즉각 조언했다. 면접 노하우와 함께 기술 분야의 시장 전망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박종용 JT저축은행 대표는 "앞으로도 교육활동과 함께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사회 문제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 환원 여성·가족 친화

JT저축은행은 여성·가족 친화기업을 지향한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과 미혼모 가정에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2024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국내 저축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역 내 자금공급 심사에서 ▲지역별 예대율 ▲지역별 중금리대출 실적 ▲지역별 서민대출 실적 등 3가지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위탁기관인 '새롭이새남이집'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새롭이새남이집에는 미혼모 가정 10가구와 함께 보호기간 종료로 퇴소 후 생계 후원 관리를 받는 40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미혼모자 가정 돌봄 지원을 하고 있다.

기부금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미혼모자 가정 후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구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저축은행의 취지를 살린 것. 또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아동 대상 범죄를 없애



JT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분당경영고 학생을 위한 모의 취업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구 JT저축은행 준법감사인(왼쪽)과 송지호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실 체육육성부장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T저축은행

소상공인·서민 위한 금융상품 강화 3년 연속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학생들에 금융권 취업 발판 마련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미혼모 지원 임직원 응원 메시지와 기부금 전달

패럴림픽 선수 훈련지원금 등 후원 헌혈데이 운영... 8년째 정기적 나눔

자는 취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JT저축은행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전파한다. 캠페인은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박람회 등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캠페인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달 JT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다. 응원과 함께 모금한 기금은 후원금으로 전달한다. 지난해 조성한 후원금은 아동심리 치료와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학대피해 가정 부모 교육과 의료·생계비 후원 등으로 사용했다.

박 대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등에 사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속 숨은 '사각지대' 조명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도 응원했다. 지난 9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JT저축은행 임직원들은 MVP 선수를 직접 선정하고 훈련지원금과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무드등 220개를 제작했다. 무드등은 선수뿐 아니라 훈련코치와 감독, 의료진, 통역사에게도 함께 선물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과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항저우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도 후원금을 만든 바 있다. 올해 파리 패럴림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4번째 후원 활동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생명 살리는 JT헌혈 데이'를 운영했다. 임직원 40여명과 성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을 진행했다.

헌혈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점성 증단을 제외하면 8년째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처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로야구 SSG, '타격왕' 에리디아와 180만달러에 재계약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방관자 되지 않겠다" /사진 뉴시스

▲'위키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예매율 선두는 '모아나 2'
▲제15회 공연예술경영상 대상에 일신문화재단



▲서울옥션, 미술품 시가감정위원회 출범... "믿을 수 있는 서비스"
▲국립합창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12월17일 '세상의 하모니' /사진 뉴시스